신뇨엔 "한국불교와 교류 뜻 깊어"

4월 6일 부산 삼광사 방문, 교류 우호 다져

재단법인 신뇨엔이 천태종 삼광사를 방문, 한국불교와의 교류가 의미 있고 뜻 깊다고 전했다. 앞으로 신뇨엔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신뇨엔(대표 기시다 가츠오 · 이하 신뇨엔)은 4월 6일 삼광사를 방문해 한국불교의 전통과 수행법을 확인하고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사진> 기시다 가츠오 대표를 비롯해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부장, 다카하시 히로시 이사, 정경 국원 등 신뇨엔 이사들은 봉축연등행사를 준비 중인 삼광사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신뇨엔 이사들을 반기며 〈묘법연화경〉이 새겨진 소(小)병풍을 선물했으며, 신뇨엔은 개조 이토 신죠가 음각한 백금 관세음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을 전달했다.

세운 스님은 "불교계에 재가불자가 많아지고 조직이 활성화 돼야 한다. 신뇨엔에는 재가불자가 많아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더 많은 수행자들이 도심 생활 속에서 정진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뇨엔은 "삼광사와 교류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잘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뇨엔은 4월 5일 부산 서동 아동센터를 방문, 생필품을 후원했다. 신뇨엔은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와 후원협약을 맺은 후 아동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사회복지법인 범어와 서동 아동센터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강릉 현덕사, 개산 20주년 동식물 천도재

4월 20일 기념법회… 산불 피해 복구성금 전달도

자연 속에서 죽어간 동식물들을 위해 매년 천도재를 봉행하는 강릉 현덕사가 개산 2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연다. 또한 최근 대형산불로 희생된 동식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도 봉행한다.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개산 20주년 기념법회 및 동식물천도재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 과정에서 숨진 동식물들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회서는 청주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창원 서원사 주지 봉은 스님이 참여해 현덕사 개산과 동식물천도재의 의미, 산불로 고통 받은 동해안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법문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덕사는 지난 5일 대웅전에 설치한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함' 에 모연된 기금을 20주년 기념법회서 고성군에 전달한다. 윤호섭 기자

"출산 · 육아 인식개선 도움을"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5회 프리데이 두물마당

선운사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신지혜)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제5회 프리데이(freeday) 두물마당' 을 개최했다.

고창군 종합복지관장 대원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스님들과 유기상 고창군수, 고창군 지역의 영유아와 부모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과 10여종의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마술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고창가족센터, 한마음지역아동센터의 업무협력으로 진행된 영양상담과 세계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세 자녀와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한 고안나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나선 체험나들이다. 날씨도 화창하고 청명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소년 '행복' 바란 인재양성 13년

해동원효장학회, 제13차 장학금 전달 및 결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을 돕고자 스님들이 호법신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스님들은 결연을 맺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학비를 지원하며 공부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13년째 인재양성 후원을 실천한 해동원효장학회 이야기다.

해동원효장학회(회장 원광)는 4월 9일 해동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해동고등학교 개교 82주년을 맞아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회장 정민 스님(폭포사), 총무 자인 스님(길상사), 원각 스님(달마선원), 최상규 법사(무구선원) 등 장학회 이사들이 참여했으며, 이상용 해동고등학교 교장, 박종문 총동창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해동원효장학회 스님들은 이승훈 학생 외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업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학생들은 신심 있는 불자로서 평소 성적이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선발했다.

스님들은 학생들에게 늘 노력하고 성장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부탁했다. 자인 스님은 "학업이 쉽지 않겠지만 몸을 이끌어가는 마음을 알고 공부하면 집중이 더욱 잘 될 것"이라며 "행복의 지름길은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을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격려했다.

학생들도 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준혁(2학년) 학생은 "저희를 위해 스님들께서 이렇게 후원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린다. 장학금의 무게를 깊이 새겨 지금

2006년 시작한 청소년 후원
지금까지 2억7000만원 전달
학비 부담 줄이는데 큰 도움
"성실한 학업으로 보답 계획"

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3학년) 학생은 "공부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더 좋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스님들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해동고등학교는 인재불사에 앞장서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한 해동원효장학회 스님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해동원효장학회는 4월 9일 해동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상용 학교장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해동고등학교는 훌륭한 역군을 배출, 더 좋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오늘 스님들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해동고등학교는 통도사 영축학원이 운영하는 불교 종립학교이다. 자비(慈悲), 지기(知己), 실행(實行)을 교훈으로 1937년 건립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동원효장학회는 2006년 스님 14명과 재가자 1명으로 문을 열었다. 해동원효장학회는 회원들이 각자 학생 한 명의 학비 지원을 약정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돕는 장학회다. 현재 매년 12명의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학생 한 명당 한 해 필요한 학비는 174만원이다. 현재까지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후원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힘든 고등학교 시절 맺은 스님과의 인연은 정신적으로 든든한 후원이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졸업 후 학생들은 결연했던 스님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며 편지를 쓰고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도 한다.

자인 스님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오직 학생들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법을 만난 인연은 무엇보다 큰 복이다. 이렇게 인연이 된 학생들이 성장해 부처님을 생각하고 찾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승 해안 대종사 선맥 기리며"

부안 내소사, 역대조사 다례
해안 스님 육성법문 청취도

부안 내소사가 근대 호남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해안 대종사 45주기 추모재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11일 해안대종사 열반 45주기를 맞아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 조계종 어산종장 동희 스님. 선운사 원로 법현 ·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내소사 부도전에서 열린 역대조사 다례재는 조계종 어산종장 동희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는 생전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 청취, 분향, 인사말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안 문도를 대표해 동명 스님은 "스님께서 열반하신지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님의 생전 모습이 엊그제 일처럼 선하다"면서 "대중을 외호하고 문도들이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주지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안 대종사 45주기 추모재 및 내소사 역대조사 다례재에 참여한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행사 준비로 바쁜 중에도 이곳까지 찾아와 다례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며 "늘 해안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대중스님들과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해안 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 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고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중구불교연합회 화음으로 여는 봉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중구불교연합회가 합창제를 개최하고 '광복로연등문화제' 준비에 돌입했다.

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4월 8일 고심정사 법당에서 '2019 부산중구 불교합창제' 를 개최했다. 합창제는 미타선원 클리어마인드 합창단, 정수사 아비라합창단, 고심정사 연빛합창단이 출연했으며 중구불교연합회 고문 원택 스님, 중구불교연합회장 종호 스님, 정수사 주지 일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중구불교연합회장 종호 스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노력의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앞으로 어느 합창제보다 여법하고 자랑스러운 축제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며 "오늘의 첫 걸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연합회 2019광복로연등문화제는 4월 26일~5월 15일 부산 광복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